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교회연도 시작을 축복하시는 주님

교회연도 시작

성 시메온 주상수사, 성 하리콜리아 순교자

제2조, 조과복음 11

성 요한 크리스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주일 입당송 / 14. A 42

· 교회연도 시작 찬양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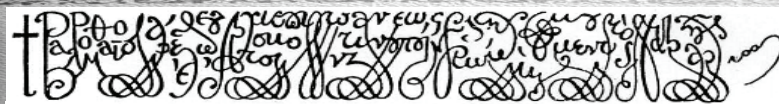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B 207

· 사도경: 디모테오 전 2,1-7 / 봉독서 565

· 복음경: 루가 4,16-22 / 예식서 미기재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2019년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의 교회연도 시작 메시지

새 로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세계총대주교인 저 바르톨로메오스는 온 피조 세계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와 자비가 온 교회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존경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가 교회력의 시작인 9월 1일을 '환경 보호의 날'로 제정한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너그러우시고 선하신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정교회 신자, 그리고

타교파 그리스도인과 타종교 대표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 환경 운동가, 과학자, 모든 분야

☞ 2면으로 계속

1면에서 계속

의 지식인을 비롯하여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이 제안에 호응하여 나서줄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세계총대주교의 생태계 보호 활동은 신학에 영감을 주었고, 그리스도교 인간학과 우주론의 진리, 감사의 성만찬에 비추어 이해된 세계관, 피조 세계에 대한 마땅한 대우, 정교회의 금욕적 정신 등을 생태적 위기의 참된 원인을 이해하게 해주는 근본 바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신학적 생태학 혹은 생태학적 신학과 관련된 문헌과 저작의 목록은 방대해졌고, 그것은 현대 인류의 삶에 제기되는 주요 도전들에 맞서는 정교회의 놀라운 증언입니다. 생태 위기, 죄악의 전 세계적인 차원과 그것의 결과, 인류를 소외시키는 ‘가치 전도’ 등에 대한 관심은 생태 문제와 사회 문제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 그리고 이 둘을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피조 세계의 온전한 보존과 사회 정의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리할 수 없는 활동입니다.

피조 세계 보호에 대한 세계총대주교의 관심은 현대의 생태 위기에 대한 반응이나 그 결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생태 위기는 다만 교회가 자신의 친환경적인 원리를 표현하고 발전시키고 선포하고 증진시키는 동기와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뿐입니다. 자연 환경에 대한 교회의 한결같은 관심은 교회의 정체성과 신학 그 자체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한 차원이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의 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삶 자체가 ‘경험이 풍부한 생태학’이고, 피조 세계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적용이며, 교회의 환경 보호 활동의 원천입니다. 피조 세계 보호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세계와 맺고 있는 모든 차원으로 감사의 성만찬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례 생활, 금욕적 기쁨, 사목적 봉사, 신자들이 경험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이 모든 것은 인격들 간의 친교를 포함합니다. 그 인격들에겐, 자연 현실이 결코 하나의 대상 혹은 개인과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용한 물질로만 축소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연 현실은 인격적 하느님의 사역, 행위, 작품으로 여겨지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 현실을 존중하고 보호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의 감사의 성만찬적인 관계를 진작시키는 하느님의 ‘동역자’, 피조 세계의 ‘청지기’, ‘보호자’, ‘사제’가 되게해 주십니다.

자연 환경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삶에 추가로 덧붙여진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삶의 본질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교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전례적 직무’입니다. 교회가 주도하는 모든 활동은 ‘교회론의 적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적 생태학이 그리스도교 인간학과 우주론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자각 혹은 응답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거룩한 감사의 성만찬에서 실현되고 표현되는, 온 피조 세계의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과 관련됩니다. 거룩한 감사의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하늘 왕국의 영광과 찬란한 빛 안에서 완성될 하느님의 구원 경륜의 종말론적인 충만의 한 형상을 보고, 또 그것을 미리 맛봅니다.

주님 안에서 존경하는 형제와 친애하는 자녀 여러분,

생태 위기는 우리 세계가 하나의 전체이고, 우리의 문제는 모두가 공유해야 할 전지구적인 문제

 3면으로 계속

하느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

조시마 원로의 영적인 충고/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인용

▷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라. 피조물 전체와 낱알의 모래 알갱이들도. 모든 나뭇잎과 하느님이 만드신 태양 빛의 한 가닥 한 가닥도 사랑하라. 식물들과 나무들, 그리고 모든 자연계를 사랑하라. 만일 네가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너는 모든 것 안에 들어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날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때에 너 자신을 향해 되풀이하여 기도하라. ‘주여, 오늘 당신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왜냐하면 매 시간, 그리고 매 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떠나고, 그들의 영혼은 당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독과 무관심, 슬픔, 낙담 속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지... 또한 그런 그들을 아무도 애도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왔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비록 당신은 그들(죽은 이)을 모르며 그들 또한 당신을 모를지라도, 아마도 이 지상의 또 다른 한 쪽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이 평안히 쉼을 얻도록 드리는 당신의 기도가 하느님께 가 닿을 것입니다. 두려운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는 한 영혼이 그 순간에 자신을 위해 이 땅 위의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한 이 지상에 자신을 사랑하는 동료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들 모두를 다정하게 바라다보실 것인데, 그것은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많은 동정과 연민을 느낀다면, 당신보다도 무한히 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은 그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친구와 동료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임을 드러내줍니다. 이러한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층위의 동원, 공동의 합의와 방향과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인류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여전히 집짓 이를 망각하며 행동하길 지속하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화의 맥락에서, 재정적 지표와 재정적 이익의 확대에만 초

점을 둔 지배적인 경제 발전 모델은 생태적 경제적 문제를 악화시켰음에도, 그런 관념은 여전히 ‘다른 대안이 없다.’거나, 세계 경제의 경직된 논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견잡을 수 없는 사회적 재정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식의 생각들을 우세하게 만들고 있고, 반면 사회적 연대와 정의의 능력에 의존하는 대안적 발전 형태

☞ 4면으로 계속

3면에서 계속

는 쉽게 간과하고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생태적, 사회적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더욱 막중하게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교구, 교구, 지역 성당, 수도원이 환경 보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태적 기풍과 연대의 진작과 발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생태적 사회적 감수성 형성에 매우 민감하고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교육의 긴급성을 자각한 세계총대주교청은 일련의 할키 국제 정상 회의 중 3번째 회의를 ‘신학 교육과 생태적 자각’(2019년 5월 31일 ~ 6월 4일)이라는 주제로 하여 생태학과 환경 문제의 자각을 신학교의 프로그램과 학과 과목에 결합시킬 것을 목표로 삼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주된 도전을 극복하는

것은 영적인 방향 설정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전례력이 시작되는 이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로 가득한 복되고 유익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또 전 세계에 퍼져있는 어머니 교회의 빛나는 자녀들이 피조 세계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자연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투쟁해 줄 것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피조 세계 그리고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닮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고통받는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참다운 진보도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끝으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복되신 성모님의 중보로, 온 세상 만물의 공급자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하느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은총과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콘스탄티노플 세계총대주교가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기원하면서

소 식

대교구

- 교회연도 시작 ▷ 오늘 9월 1일은 교회연도의 시작 일입니다. 새로운 교회연도에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새로운 교회연도 시작 메시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태계를 보전하고 올바르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여름 수련회 후속 모임 ▷ 여름 수련회를 마친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신데즈모스 회원들과 중등부 학생들이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을 방문하여 울산 성당의 학생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 후속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니다. 크리스토퍼 신부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게임도 하면서 친교를 나눔으로써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부인회 친교 모임 ▷ 지난 8월 25일 주일 성찬예배 후 부인회 모임을 가졌고, 이어서 저녁에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안토니오스 임종훈 사제, 요한 박인곤 보제와 함께 저녁 식사 모임을 가지면서 영적 대화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모임을 준비해주신 부인회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